

‘나주 고유의 색’ 천연염색, 프랑스 물들인다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낭트 ‘한국의 봄’ 축제 참가 우수성 소개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치’ 컨퍼런스 참여 문화산업 세계화 도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하 '재단')이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 ((Le Printemps Coreen) 축제에 참가해 나주 고유의 색인 천연염색을 소개한다.

재단은 나주의 전통 염색 기술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천연염색 작품 전시와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 친환경 가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전통 공예의 진면목을 유럽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봄’은 매년 프랑스 서부 낭트 지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한국문화 축제이다. 공연과 전

시, 영화와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유럽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복합 문화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재단은 축제에서 천연염색 원단과 다양한 의류 작품을 전시한다. 천연염색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한국 전통미의 정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친환경 공예로서 천연염색이 지닌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강조한다.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의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발표자로 참여해 나주에서 재배되는 쪽(藍) 식물 염료의 특징과 활용

방식, 환경적 장점,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가능성 등을 피력한다.

이번 축제 참여는 천연염색 분야를 유럽 국가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첫 사례로 지역 전통문화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관계자는 “나주의 천연염색은 자연과 공존하며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색과 철학을 담고 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탄소 감축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축제에 통해 천연염색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양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12일 화순 청풍초등학교에서 학봉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화순 청풍초, 전교생 23명에 장학금

학봉장학회 6년간 지급

전남교육계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화순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 청풍초등학교는 12일 전교생 23명에게 2025 학봉장학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풍초는 전남 화순의 작은학교이며, 재단법인 학봉장학회는 청풍 출신 고 이기학 회장이 설립한 재단이다.

학봉장학회는 고향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청풍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풍초 학생들은 입학하고 졸업 때 받는 장학금과 별도로 매년 학봉장학회를 통해 20만원씩, 6년간 1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김효관 청풍초등학교 교장은 “이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큰 선물”이라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2t 미만 지게차 구입비 지원...농업인 편의성 증진

정부 규제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강진군이, 2t 미만 지게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 편의 증대에 나섰다.

지난 7일 부터 시행중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으로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2t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된데 따른 조치다. 2t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 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3.4%)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안전성과 혼용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2톤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

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발전, 농업 분야 진흥을 위해 지게차 구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근 3년간 2022년 10대, 2023년 12대, 2024년 6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군비 1억5800만원을 확보해 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농업용 지게차 2톤 이상 3t 미만이었으며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게차 운전자격증 소지자였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강진군은 2t 미만의 지게차도 농업용 기계로 인정함으로써 농업

기계 지원 대상 저변 확대는 물론 지원 자격 역시 지게차 운전자격증 미소지자로 넓힐 전망이다.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으로 2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 불필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용 지게차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축소를 넘어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 황룡강 일원에서 '2025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는 힐링허브정원 인근.

〈장성군 제공〉

황룡강변 매력 넘치는 작가들의 정원 구경 오세요

장성군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18일까지...도자기 등 마켓도

장성 황룡강 일원에서 '2025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전라도와 장성군이 함께 마련한 이번 페스티벌은 '남도정원, 남도인의 삶이 담긴 정원'이라는 주제로 힐링허브정원 인근 총 1.5km에 걸쳐 초청정원, 작가정원, 시민참여정원이 설치되며 오는 18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수준 높은 정원 조경의 이름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황지해 작가의 '적멸의 꽃'은 장성사초, 백양꽃 등 강변 식물을 활용해 강의 생명력을 시작적으로 표현한다.

김명윤 작가의 '밀암심원'은 여귀, 붓꽃, 미나리아재비 등 남도 자생식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박정아 작가의 '시절인연'은 정원와 산책길, 벤치, 물담 등을 배치해 자연과 사람의 인연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박종완 작가의 '물, 바람 그리고 정원'은 노란색을 지닌 식물들과 부드러운 동선을 활용해 파스하면서도 희망찬 에너지를 전한다.

서자유·박병훈 작가의 '강의 이야기'는 안개정

원, 장대셀터, 바위정원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1894년 동학군이 관공을 상대로 첫 승전을 기록한 황룡촌 전투의 역사성을 담았다.

이 외에도 수예품, 도자기 등 남도의 감성을 담은 상품들이 가득한 '가든 플라마켓'에선 미니 정원 만들기, 꽃갈피 만들기 등 정원 체험도 해볼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정원문화의 확산과 황룡강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후 사계절 감상이 가능한 정원을 활용해 황룡강 일원에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청년 창업자 모집...최대 1억원 지원

49세 이하 5명 23일까지

함평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 내에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사업 일환으로 오는 23일까지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 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함평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사업’은 빈 상가 등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

진 중인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총 19억 5000만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 관내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만 49세(1975년생) 이하 청년으로, 지역·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 2000만원(월 매출 1000만원 이상) 이상인 기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직접 나비어울림센터(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 3층)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pjobs@naver.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게 창업지원금 700만 원과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함평소식)·타기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청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 지원

연 1% 저리 최대 5000만원 한도

나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나주시는 5월 한 달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소득 융자지원의 관내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자금을 연 1%의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 융자 지원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지원은 선(先) 사업 추진 후(後)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

증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융자 실행 시 연 2~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선(先) 대출 후(後)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자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와 민생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큰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비용 90% 지원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5개 분야

함평군은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만 51세(74년생)부터 70세(55년생)까지 흡수년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함평성심병원에서 검진을 한다.

검진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농약 노출 등으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검진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근골격

계 및 심혈관계 질환 등 취약 질환을 중심으로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검진비용은 90%를 지원한다.

검진은 지정병원인 함평성심병원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검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함평성심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여성농업인은 특정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이번 건강검진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검진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어르신·장애인 등 납세 도움

담양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9~23일 군청 문화행복동 3층 지방세 전산실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중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창구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수신자 중 어르신·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단순 신고자는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PC(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

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위택스)가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담양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